



보도 일시	2022. 6. 22. (수) 16:00	배포 일시	2022. 6. 22. (수) 14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 핵심사업평가팀	책임자	팀장 한주희 (044-215-8781)
		담당자	사무관 조현두 (pumpguy9@korea.kr) 사무관 신재원 (jwsin1@korea.kr)

최상대 제2차관, 경남밀양 산불 피해·복구현장 방문 -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대응역량 강화방안 논의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'22.6.22(수) 13:30, 경남 밀양의 산불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였음
- 밀양산불(5.31일 발화, 6.5일 진화, 763ha)은 산불통계를 기록한 '86년 이후 최초로 6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서, 산불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
- 이번 현장방문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,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음

< 밀양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 개요 >

- (일시·장소) 6.22(수) 13:30~15:30, 밀양시 산불대응센터, 산불 피해지 및 응급복구 현장
- (참석자) (기재부) 제2차관, 핵심사업평가팀장
(행안부) 재난복구정책관 (산림청) 산림보호국장, 남부지방산림청장
(경상남도) 기초실장, 기후환경산림국장 (밀양시) 밀양시장 등

- 최 차관은 밀양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하여 행안부·산림청·소방청 등과 산불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헌신한 산불진화대의 애로를 청취 하였으며,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을 살펴보았음
- 먼저, 최 차관은 밀양산불이 인명·재산 피해없이 마무리된 점과 관련, 각 기관의 적극적 협력, 현장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하였음

- 아울러,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이며,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'22년 2차 추경시 초대형 헬기 도입,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등 최근 정부의 산림보호 노력*을 공유

* '22년 2차 추경시 관련 예산 748억원을 반영

- ① 장비확충 : (산림청) 초대형헬기(1대, 55억원), 산불진화차량(고성능 9대, 일반 59대, 84억원), (소방청) 산불전문진화차(8대, 30억원), 헬기 배면물탱크 설치(10대, 84억원)
- ②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(13억원)
- ③ 임도 확대(100Km, 221억원), 산불예방 숲가꾸기(95억원), 인화물질 제거(56억원)
- ④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 지원(송이채취 농가 400가구, 40억원), 희망근로 지원(600명, 50억원)
- ⑤ 강원·경북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(627개소, 20억원)

□ 한편, 최차관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대형 산불의 발생 외에도, 산불이 더 자주, 더 크게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산불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

- 현장에 참석한 행안부, 산림청, 소방청 등은 산불 예방·피해최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현황 및 향후 투자방향 등을 공유하였음
- 경남도·밀양시는 지역의 산불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확충예정인 장비·인력이 해당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

□ 최 차관은 산불피해 수습·복구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, 현장인력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

- 산불의 예방, 진화, 피해복구 전(全) 과정에 걸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돕고, 산불 등 산림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투자 및 감시·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하였음
- 아울러,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정비 등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였음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핵심사업평가팀	책임자	팀 장	한주희 (044-215-8781)
		담당자	사무관	조현두 (pumoguy9@korea.kr)
			사무관	신재원 (jwsin1@korea.kr)
<공동>	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미혜 (044-215-743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훈 (anyoung@korea.kr)

